

기자를 위한 변명

한기봉 · 언론중재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우리말에는 ‘질’자가 붙은 단어가 적지 않다.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다. 삼질, 걸레질, 바느질은 괜찮지만, 다음 경우는 어감이 확연히 다르다. 선생질, 목수질, 도둑질, 노름질, 싸움질, 전화질, 고자질 같은 단어들이다. 욕을 듣는 기분이다.

국어사전은 이런 경우의 ‘질’은 ‘어떤 직업을 낮잡아 부르거나 옳지 않은 일을 이룰 때 붙는 접미사’라고 설명한다. ‘갑질’이란 신조어(아직 국어사전에는 미등재)도 이런 경우다.

나는 30년간 ‘기자질’을 했다. 그것도 한 신문사에서 한 우물만 폈다. 현역 시절 나도 곧잘 이리 말하곤 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놈의 기자질 정말 때려치워야지”라든지, 누가 직업을 물으면 “기자질하고 있습니다”라며 웃어넘기기도 했다.

‘선생질’도 그런 경우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직업에 왜 ‘질’자가 붙었을까. 그 직업에 특별히 요구되는 기대치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글썸다. 그런데 선생질이나 기자질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야, 선생질 똑바로 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모욕에 가깝지만,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학개

그’이거나 겸양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 말한다.

직업에는 ‘사’(士, 師, 事)자가 붙기도 하고 ‘가’(家), ‘자’(者), ‘인’(人), ‘원’(員), ‘부’(夫) 자가 붙기도 한다. 판검사(判檢事), 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 등에서 보듯 ‘사’자는 한자로는 제각기 달라도 대체로 소위 선망의 대상인 직업군이다. 작가, 화가, 기업가, 발명가처럼 ‘가’ 자도 대체로 전문 직종을 말할 때 쓴다. 그런데 기자(記者)란 직업에는 왜 ‘놈 자(者) 자’를 쓸까 아직도 의아하다.

기자는 기사를 잘 쓰든 못 쓰든 욕을 먹는 놈이라 해서 ‘놈 자’가 붙었다고 기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학자, 성직자, 과학자, 노동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한길을 걸어야 하는 직업에 ‘자’가 붙는다는 독창적 해석도 있다.

아무튼 ‘자’가 기분 좋은 글자는 아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다’처럼 ‘자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간호원(員)도 간호사(師)로 승격해 선생 반열에 들었듯이, 기자도 기사로 불린다면 어떨까. 글썸, 운전기사와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칭을 바꾸자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스포츠라이트>라는 영화가 작품상과 각본상을 탔다.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레버넌트>가 강력한 수상 후보였기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영화는 실화가 바탕이다. 미국의 전통 매체인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보도팀이 가톨릭 사제들의 지속적 아동 성추행과 교단의 조직적 은폐를 6개월 동안 추적해 밝혀낸 과정을 그렸다. 이 보도는 2003년 풀리처상을 받았다. 국내에선 30만 명이 관람했으니 상 값에는 이르지 못했다.

나는 이 영화의 관람평이 궁금했다. 대다수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평이었는데 후련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이란 반문이다. ‘한국에선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자가 없으니까’, ‘기레기들은 꼭 보세요’라는 글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영화가 그리는 언론의 모습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스포츠라이트>처럼 거대악이나 부당한 권력,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용기 있는 모습이 하나고, 거꾸로 그것과 결탁한 비도덕적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시청률과 특종에 매달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미디어의 두 얼굴이다.

언론과 기자를 소재로 삼은 한국 영화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나왔다.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내부자들>, <특종:량첸 살인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베테랑>,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제보자>(2014), <찌라시:위험한 소문>(2014), <더 테러 라이브>(2013), <부당거래>(2010) 등이 상영됐다.

<베테랑>은 1천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흥행 3위 기록을 세웠다. <내부자들>도 700만 명이 넘게 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는 최다 관객을 모았다. 이중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다운 기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제보자>와 <소수의견> 두 편인데 흥행 성적은 별로였다.

나머지 영화들 속 언론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예외 없이 권력과 야합하거나 재벌에 빌붙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등장하는 기자의 모습 또한 비루하기 짝이 없다. 논설주간 한 명이 재벌을 스폰서 삼아 정치깡패를 데리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판을 설계하고(내부자들), 광고와 기사를 바꾸고(베테랑), 취재원에게 향응을 받는 생활에 만족하고(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특종과 시청률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거나 테러범과 거래한다(량첸살인기, 더 테러 라이브).

결말은 어떨까. 언론은 뒤늦게 반성하고 본연의 사명에 돌아갈까. 아니다.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나 반전은 결코 언론의 몫이 아니다. 영화들은 SNS를 통한 동영상 폭로로 악이 응징되는 공식을 예외 없이 추종했다.

나는 언론 현장을 떠난 후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비판의 근거가 빈약한 기사, 때론 저의가 의심스러운 기사를 많이 상대하게 된다.

피신청인으로 출석한 기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삼아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요구에 대체로 인색하다. 그때 신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언론 평가에 부정적이다. 친구를 만났을 때 언론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언론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침을 튀긴다. 정치적, 이념적 사안에 대해서는 더 그런 편이지만 “요즘 언론은 말이야, 요새 기자들은…” 하며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취업을 앞둔 아들이 나에게 불쑥 물은 적이 있다. “아빠는 직업에 보람을 느꼈나요?” 나는 이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보람을 느꼈던가? 아니, 보람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는 게 맞지 않을까? 30년간 칼퇴근이란 것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어쩌다 해가 남아 있을 때 귀가하려 하면 웬지 어색해서 석양주를 마시곤 했다.

그런데도 직장 옮길 생각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 못하고, 대기업에 간 친구들보다 월급이 박해도 밤낮 없이 일한 것은 대체 무슨 동배짱이었을까. 이제 와서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별 신통한 대답은 없다. “그냥 기자였으니까.” 내 대답은 이 정도뿐이다. 그래, 그 시절 기자는 품도 잡았고 위세도 좀 떨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보람도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니, 신문에 낫다니까”라는 한 마디가 좌중의 논란을 평정했다. 술을 마시다 사실 여부를 놓고 싸움이 붙으면 무턱대고 밤늦게 신문사로 전화를 해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그 권위를 네이버 지식인에게 빼겼지만.

가슴에 도장처럼 찍힌 장면이 있다. 야근을 마친 새벽 4시, 운전기의 굉음, 잉크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닐에 콩콩 묶인 신문덩이들, 그걸 가득 싣고 전국 팔도로 힘차게 떠나는 배송 트럭의 행렬... 그 신문에는 나의 특종이 실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며 가슴 뿌듯했던 기억. 이 장면은 영화 <스포츠라이트>에도 그대로 재연됐다. 기자의 마음은 다 같은가 보다.

자,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정말 대중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마땅한 지점까지 온 것일까.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는 온당하고 객관적일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건 그렇다 쳐도 기자는 언제까지 ‘기레기’로 조롱당해야 하나.

물론 한국 언론과 기자는 반성문을 써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나치다고 본다. 시중의 평판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내가 몸담았던 신문의 후배들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측은하다. 취재하는 모습은 내가 현직에 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아직도 밤새 경찰서를 돌아다니고, 취재원 집 앞에서 허구한 날 뺨치기를 하고, 365일 24시간 좋은 기사, 특종 하나를 건지기 위해 개인적 삶의 질을 희생한다.

특히 영화에 대해선 유감이다. 사회의 거대악을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건 아직도 결기 있고 훈련된 기자들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SNS가 아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 해도 그런 시나리오엔 무책임하고 이젠 식상하다. 적어도 전통있는

한국 언론사의 편집국, 보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설정이다. 일간지 논설주간 한 명이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금수저, 흙수저를 탄생시킨 사회적 분노가 ‘마케팅’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류의 영화 속에서 권력과 재벌은 거대악으로 포맷되고 언론은 그 공범으로 단순화되고 이용당한다. 그리고 함께 응징된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도 부인할 수 없는 권력임에는 분명하다. 권력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느낀다.

나는 <스포츠라이트>에서와 같은 추문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느 언론사든 바로 특별취재팀을 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자들은 발이 닳도록 뿔 것이다. 그런 기자가 없어서 그런 영화가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신문이 맘에 안 든다고 말할 때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언론의 이념적 좌표는 언론사마다 확연히 다르다. 그게 개개인의 가치와 관점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언론’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독립적 언론은 있어도 중립적 언론은 언론의 숙명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도 미국에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있다. 독자는 선택의 자유를 구사하면 된다.

보수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안기거나 대기업을 경영위기로 몰고 간 이슈들이 보수언론의 특종으로 드러난 걸 많이 봤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다. 경험으로 말하건대 기자는 특종 앞에선 이념과 물

불이었다.

한국 기자가 다 기레기는 아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언론사의 수가 1만 7,210개로 발표됐다. 이중 신문사업자가 3,400개, 인터넷신문이 6,149개다. 나도 그 수에 놀랐다. 당연히 품질과 옥석의 차이가 있다. 권위지도 있고 ‘듣보잡’도 있을 것이다.

포털 안에서는 중앙일간지나 취재기자가 몇 안 되는 군소 인터넷 매체나 공평한 지위를 갖는다. 평등하게 노출되고 차별 없이 검색된다. 뉴스 소비자는 사실 매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클릭 수에 목숨 걸고 어부징(특정 기사를 약간만 수정해 반복 노출시키는 행위)을 일삼는 매체의 편집이 눈에 더 잘 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언론의 정도(正道)를 외면한 일부 매체를 보고 전체 언론을 평가절하한다면 옳지 않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평소 신문과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다분히 인상적인 느낌으로 “요즘 언론은…” 하면서 언론을 도매금으로 불신하는 분위기다. 언론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비판은 최소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센’ 언론을 욕한다고 ‘개념’있게 보이는 건 아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 기자에 대한 조롱이 사회 전반에 고정관념처럼 굳어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더 펜을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보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론뿐이다. 반평생 기꺼이 기자질을 해온 사람으로서 기자를 위한 ‘용감한’ 변명을 감히 해봤다. 